

여순사건 다룬 웹드라마 '동백', 스페인 웹페스트 최고상

유럽 최고 권위 국제 웹영화제서 '황금 늑대상' 수상 영예
여수 관광지 홍보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등 큰 호응

민선 7기 여수시가 스페인 국제 웹 영화제 대상 수상과 함께 적극적인 여순사건 진상규명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시상식에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직접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이 '황금 늑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과 동백을 제작한 김상욱 관광마케팅 팀장 등 관계자들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관련 영상을 상영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는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웹영화제로 올해만 전 세계 18개국 137개 작품이 열린 경쟁을 펼쳤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웹페스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여수시 웹드라마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집행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

'동백'은 스페인 웹페스트 심사위원들로부터 영상미와 주제 의식, 작품성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광과가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웹 드라마 동백은 50분 분량으로 여순사건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수 관광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지역 홍보 효과도 높다.

여수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을 웹 드라마로 풀어낸 동백은 여순사건의 아픔과 치유, 희망찬 미래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



권오봉 여수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제5회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가 열린 스페인 빌바오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 있다. 현재 동백은 유튜브 힐링여수야 채널 등 SNS에서 조회 수 30만 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난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1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올해 7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조차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담은 웹드라마 동백 제작과 함께 진상규명

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염원을 담아 권오봉 여수시장과 직원들이 3박 5일의 빠듯한 일정으로 스페인 현지로 달려간 것이다.

특히 웹 페스트가 열린 스페인 빌바오도는 한 마을(게르니카) 주민 2000여 명이 모두 희생된 아픔을 간직한 인구 34만 명의 해양도시로 여수시와 여러모로 닮아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상식에서 "지난 2016년부터 여수시가 매년 직접 제작·발표한 웹 드라마가 올해 황금 늑대상을 수상하는 큰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과 여순사건 진상규명 영상은 바스크 국영 TV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여수 소개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을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성료... 13만여명이 즐겼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수놓은 불꽃축제가 성료됐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낭만 가득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오색 불꽃의 향연인 '2019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사진)가 지난 26일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은 기상상황상 축제 연기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13만 7000여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Yeosu!)'라는 주제로 열린 여수 불꽃 축제는 차별화된 불꽃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축제는 야카펠라와 LED 난타 공연, 낭만 버스킹 등 흥겨운 음악과 노래가 행사 시작을 알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1, 2부로 나눠 40분간 펼쳐졌다.

1부 불꽃은 15분간 4막에 걸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표현했다. 2부 불꽃은 25분간 5막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감정을 묘사했다.

현장에서는 캐릭터와 불케이노, 꽃다발, 오로라, 분수, UFO, LOVE 등 다양한 모양의 불꽃이 펼쳐졌다.

킬러 레이저와 특수조명, 불세, 음악, 내레이션 등은 공중에 피어오른 불꽃에 입체감을 더해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와 함께



축제의 묘미를 살렸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타워크레인 회전 불꽃은 관람객들의 탄성과 박수를 자아냈다. 이번 타워크레인 불꽃은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서 시연한 것으로 기획과 준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

여수시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11대를 운영하고 차량 38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케이블 공사로 통제됐던 돌산대교 임시 개통과 여수시 전역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소호 요트장 대형 스크린 (차량) 배치와

SNS 생중계를 통한 관람객 분산 효과도 이끌어냈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축제로도 자리매김했다.

김학섭 여수시 관광과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수밤바다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불꽃 쇼를 시민·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며 "구슬땀을 흘리며 축제 성공에 기여한 모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올 마지막 청년거리문화 한마당 다음달 2일 개최

'즉청 청년페스타 옷장라이브' 흥국상가 일원서 다양한 행사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청년거리문화 한마당 행사가 흥국상가 일원에서 펼쳐진다.

여수시는 여수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빛나는 '즉청 청년페스타 옷장라이브'가 다음 달 2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즉! 청년이 답이다'라는 뜻을 지닌 이

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구체적인 추진까지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할인 행사, 청년 예술 공연, 커피 퍼포밍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흥국상가에서는 상점 별로 최대 30%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청년 버스킹과 그림책 콘서트도 문을 연다.

이 밖에도 그림 에코백 만들기, 클레이 아트, 리사이클링 아트병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 아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만마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융복합 예술 퍼포밍, 재즈 공연, 마술·벨리댄스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사이언스 커피·진동 드립 커피 추출 시연, 라떼 커피 아트 퍼포밍, 시음회 부스도 마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청년거리문화한마당 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청 서정수 팀장 소치미술대전 '대상'

여수시청 서정수(55·사진) 팀장이 제 15회 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서 팀장은 지난 26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에서 자신의 작품 '계곡' (150x90cm)을 출품해 문화체육부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팀장은 "오래전 찾은 지리산에서 거침없이 흐르는 계곡과 바위, 나무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연의 생동감과 한국화만이 가진 수묵의 진한 채색감을 가감없이 표현내고 싶었다"며 작품제작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팀장은 "다양한 재료와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잊혀져 가는 한국화의 감성과 섬세함을 담은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재 여수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 팀장은 한국화에 대한 조예가 깊고 남다른 재능을 보여 지난 2013년 늦깎이 나이에 화단에 입문했다.

공직생활 틈틈이 작품활동에 매진해 그동안 여수바다사생대회 최우수상과 순천미술대전 특별상, 삼진강미술대전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

다. 그는 여수시청에서 30년 가까이 홍보 영상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지난 2015년에는 지방행정직의 달인'으로 선정돼 행정자

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진도군은 조선 말기 남종화 대가인 소치 허련(許鍊·1808~1893)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군은 대회 수상 작품을 다음 달 6일까지 진도읍 소천미술관 및 향토문화회관 2층에서 전시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시월진도 5G요

2019 진도문화예술제 & 아리랑축제

10.5.(토) ~ 11.3.(일) 진도 향토문화회관 일원

진도문화예술제

- 10. 5. 2019 진도 대한민국 국악제
- 10. 12. ~ 10. 13. 제13회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
- 10. 19. 2019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
- 10. 22. 판소리극 모듈전 공연
- 10. 26. 제1회 대한민국 소전 휘호대회

진도아리랑축제

- 10. 26. ~ 10. 27. 2019 제2회 진도 수산물축제
- 11. 2. 제15회 대한민국 소치 미술대전 시상식
- 11. 2. 제2회 청소년 열린음악회
- 11. 2. ~ 11. 3. 제22회 대한민국 남도민요경향대회
- 10. 31. 19:00 군민의 날 축하의 밤(철마광장)
- 11. 1. 10:30 군민의 날 기념식(공설운동장)
- 11. 1. 19:00 국악의 향연(철마광장)
- 11. 1. 20:30 미스트롯 축하쇼(철마광장)

* 출연가수 : 송가인, 정미애, 김소유, 정다경

| 주최 | Jindo 진도군

| 주관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

대/한/민/국 보배섬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